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프로그램에서 소개하지 않은 것은?
- ① 약물이 체내에서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기술
  - ② 전기 신호로 약물이 자동으로 방출되도록 하는 기술
  - ③ 주사된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기술
  - ④ 체내에서 녹는 미세한 바늘을 통해 약물이 전달되는 기술
  - ⑤ 체내에 삽입되는 관에서 약물이 방출되도록 하는 기술
2. (물음)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메모한 것이다. 강연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강연 목적 : 훌륭한 배우의 자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힌다.

❖ 강연 전략

- ◆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말함 ..... ①
- ◆ 화제와 연관된 경험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함 ..... ②
- ◆ 내용은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명하게 제시함 ..... ③
- ◆ 내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나 적절한 예를 제시함 ..... ④
- ◆ 중요 사항을 중간 중간에 요약하면서 말함 ... ⑤

3. (물음)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김 이장’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동네 유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도 해 주고, 돌장승 앞에서 사진도 찍게 합니다.
  - ②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팥이도 깎아 보게 하고, 연도 만들어 날리게 합니다.
  - ③ 우리 동네 특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양유도 직접 짜 보게 하고, 녹차 잎도 따서 차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 ④ 도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을 잘 갖추고,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 ⑤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아이들이 직접 모내기를 해 보게 하고, 가을에는 자기가 심은 벼를 베게 합니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남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원칙이 흔들리면 그 원칙을 바꿔야 한다.
  - ② 원칙이 정해지면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
  - ③ 원칙과 개인의 사정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④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⑤ 원칙을 세울 때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
  - ③ 협조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제시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말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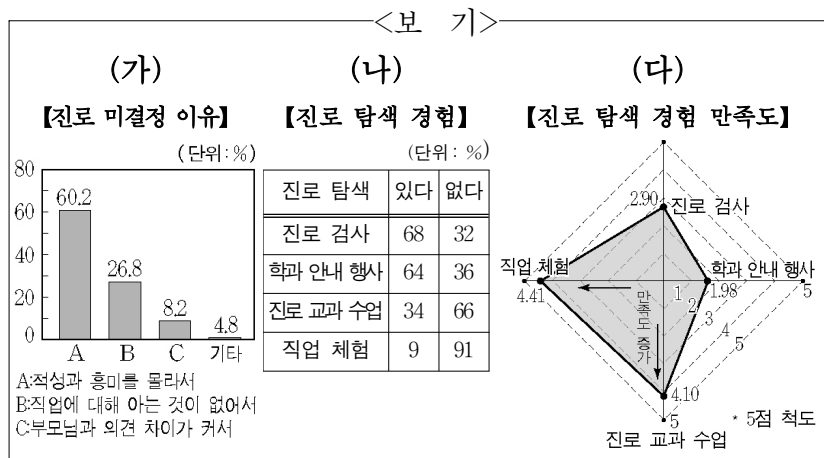
6. <보기>를 바탕으로 '아동 교육'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이 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예전에는 집집마다 메주를 직접 만들어 장을 담갔다. 우선 콩을 삶아 절구에 으갠 것을 둥글거나 네모나게 빚어 단단하게 만든다. 일반 농가에서는 메주를 더운 방에다 짚을 깔고 드문드문 놓아 벗짚과 공기로부터 미생물들이 메주로 들어가게 한다. 이 과정은 메주를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때 온도와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메주가 잘 뜨면 이것을 짚에 매달아 햇볕에 바짝 말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메주는 비로소 간장과 된장의 재료로 완성되는 것이다. 메주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야생의 여러 이로운 균들이 들어와 번식하게 된다. 그래서 메주마다 특유의 향과 맛을 내게 되는 것이다.

- ① 원만한 성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시킨다.
- ②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 ③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꾀한다.
- ④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
- 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동이 개성 있는 인간으로 성숙하게 한다.

7. <보기>는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경험'이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문제로 제기한다.
- ②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족도를 고려한 진로 지도를 제안한다.
- ③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진로 교과 수업' 중에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 ④ (나)와 (다)를 활용하여, '직업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참여율이 낮았음을 문제로 지적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진로 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학과 안내 행사'의 횟수를 늘려야 함을 제시한다.

8. <보기>는 '독수리의 마지막 날갯짓'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야기의 긴밀성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설정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 상>** 설산에 사는 독수리들은 단단한 얼음을 부리로 헤집고 먹이를 구해야 한다. 그러다 부리가 다 닳으면 굶어 죽게 된다.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높은 바위 벽을 찾아 나서고 거기에 부리를 부딪쳐 으깨 버린다. 으깨진 자리에 새 부리가 돋으면 다시 생명력을 얻는 것이다.

**<주 제>** 결단과 도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

**<등장인물>** 늙은 독수리 A(주인공), B, C, 눈보라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인물들로 설정

**<갈등 구조>** 상황과 결부된 내적 갈등, 도전 과정에서의 방해

**<기본 열개>** 회의와 결단 → 도전과 시련 → 극복과 재생

**<유의 사항>** 사물을 의인화, 사건 전개에 필연성 부여

**<세부 내용>**

-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어 가는 B와 C를 지켜보며 A가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고뇌하게 하자. .... ①
- 절벽에 몸을 던져 새 부리를 얻었다는 어느 조상의 전설을 A가 떠올리게 하자. .... ②
- A가 머뭇거리자 B와 C가 자유의 소중함을 힘주어 말하며 격려하게 하자. .... ③
- 설산에 감추어진 바위 벽을 찾아 헤매다 지친 A에게 '눈보라'가 나타나 포기하라고 말하게 하자. .... ④
- 만신창이가 된 A가 스스로 상처를 돌보며 고통과 굶주림을 견뎌 낸 끝에 새 부리를 얻는 것으로 끝내자. .... ⑤

9. <보기 1>은 ‘차별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쓴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1>

‘미운 오리 새끼’ 동화의 주인공인 백조는 오리들과 생김새가 다르다. 새끼 오리들은 자신들과 다른 백조를 따돌리지만, 어미 오리는 백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백조가 다른 오리들에게는 차별받았지만 어미 오리에게는 한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어린 새는 태어나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어미로 여기고, ㉠ 어린 새를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우리 역시 동화에 나오는 새끼 오리들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차이를 찾아서 그것을 차별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 ㉡ 내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나 역시 다른 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미 오리처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포용하려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보 기 2>

㉠은,

- ‘어미도 그것을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로 고친다. .... ㉠
- ‘그 어린 새를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 ㉡
- ‘어미도 그 어린 새를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 ㉢

㉡에는,

- ‘그러나 막상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를 넣는다. .... ㉠
- ‘한편 세상에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수저로 먹는 사람도 있다.’를 넣는다. .... ㉡
- ‘그런데 차별은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사람 사이의 차별은 차이에서 비롯된다.’를 넣는다. .... ㉢

- ① a, e
- ② b, d
- ③ b, f
- ④ c, d
- ⑤ c, f

10. <보기>의 조건에 따라 공익 광고 문안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무엇을 말할 것인가?
  -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 어떻게 쓸 것인가?
  - 표제: 감각어를 활용한 대구적 표현
  - 본문: 구체적 상황으로 경각심 고취

- ① 차가운 상상 속의 만남, 따뜻한 현실 속의 만남  
 체온 없는 캐릭터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 ② 네모 속에 갇힌 당신, 세상 밖으로!  
 당신이 게임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당신의 활력은 방안에 갇혀 있습니다.
- ③ 아직도 게임 중! 시간은 진행 중!  
 검은 파도에 휩쓸려 가는  
 당신의 보랏빛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 ④ 달콤한 승리의 환상, 씹쓸한 좌절의 현실  
 움켜쥔 당신의 마우스는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 ⑤ 하얗게 지새운 밤, 노랗게 흔들리는 아침  
 당신이 지난밤 모니터 속의 적과 대결하는 동안  
 당신은 적에게 생기를 빼앗겼습니다.

11.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 ㉡ 할아버지(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는/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썽꾸러기 돼지(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니다.

-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12.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기>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보 기>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함		
대화 상대	감정 상태	불만스러움
불필요함	A	B
필요함		C

- ① A에는 '구시렁거리다'를 포함시키자.
- ② A에는 '투덜거리다'도 가능한 것 같아.
- ③ B에는 '수군거리다'를 포함시키자.
- ④ B에는 '웅얼거리다'도 가능한 것 같아.
- ⑤ C에는 '속닥거리다'를 포함시키자.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신기루는 환상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찬 공기층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층은 밀도가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는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밀도가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때 공기층을 지나는 빛은 밀도가 다른 경계 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한다. 따라서 신기루는 지표면 공기와 그 위 공기 간의 온도 차가 큰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뜨거운 여름, 사막의 지표면은 쉽게 햇볕을 받아 가열되고, 지표면 공기는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쉽게 뜨거워진다.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 밀도가 작는데,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하게 된다. 나무 한 그루가 사막 위에 있다고 가정하자. 나무의 윗부분에서 나온 빛의 일부는 직진하여 사람 눈에 곧바로 도달하므로 우리 눈에는 똑바로 선 나무가 보인다. 그러나 그 빛의 일부는 아래로 가다가 밀도가 큰 공기층을 지나며 계속 굴절되어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계속 굴절되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두 빛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에게선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아래 신기루'라고 한다. 따라서 멀리서 볼 때는 바로 선 나무와 그 밑에 거꾸로 선 나무의 영상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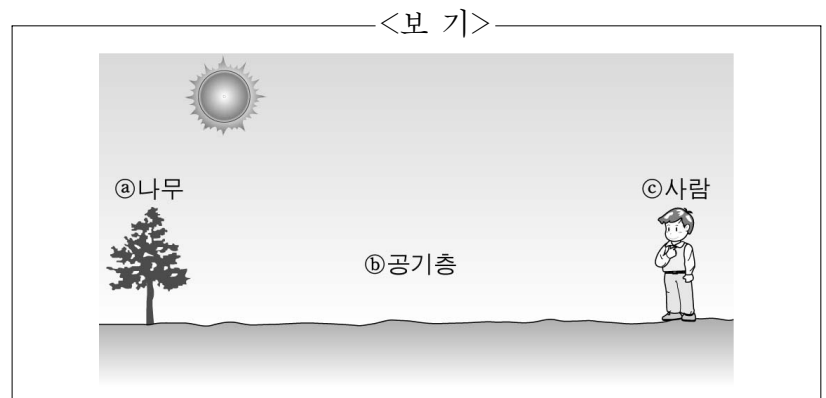
매우 추운 지역에서도 신기루는 일어난다. 극지방의 눈 덮인 지표면 공기는 늘 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다. 찬 공기층의 밀도는 크고, 따뜻한 공기층의 밀도는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극지방에 있는 산봉우리는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 '위 신기루'라고 부른다.

신기루가 나타나는 상황은 다양하다. 더운 여름철 오후에는 지표면 온도가 쉽게 높아진다. 이때 가열된 아스팔트 도로 위를 차로 달리면, 전방의 도로 면에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차가 접근하면 이는 곧 사라지고 얼마쯤 앞에 물웅덩이가 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표면과 그 위 공기 간에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하늘에서 오는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아지랑이'도 신기루의 일종이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봄날, 지표면 부근의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강하면서 불규칙적인 밀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빛의 굴절 차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물체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아지랑이 때문에 물체가 그 자리에서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1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
- ② 빛은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하는 속성이 있다.
- ③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근에 대상이 있어야 한다.
- ④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없어도 신기루가 생길 수 있다.
- ⑤ 도로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려면 주변에 물이 있어야 한다.

1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뜨거운 사막에서 거꾸로도 보인다.
- ② ㉠은 극지방의 산 정상에 있다면 본래 위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 ③ ㉠은 ㉢의 온도가 일정하면 ㉡에게 똑바로 보인다.
- ④ ㉢은 뜨거운 사막의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더 커진다.
- ⑤ ㉢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온도가 높으면 빛은 굴절되어 ㉡에게 간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된다.
- ② ㉠은 흐린 날에, ㉡은 맑은 날에 보인다.
- ③ ㉠에서는 상공을 향해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
- ④ ㉠은 가까이 다가가도 사라지지 않지만, ㉡은 사라진다.
- ⑤ ㉠은 물체가 실제보다 위로 보이고, ㉡은 아래로 보인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 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더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다.

진정한 연민은 대부분 연대로 나아간다.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성적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고통받는 타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성벽이다. ‘입구 없는 성’에 출구도 없듯, 이들은 성 바깥의 위험 지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16.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가 위협해지면 연민은 많아진다.
- ② 동정으로 끝나는 연민도 가치가 있다.
- ③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 ④ 연민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 ⑤ 연민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17.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은?

- ①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피부암 환자가 많아졌다.
- ② 행위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 ③ 뉴스를 통해 이주민의 고통을 알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 ④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⑤ 공장 이전으로 직장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1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경수’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수는 어떤 할머니의 고통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다. 경수는 할머니가 불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 자신의 탓이고,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방송 도중 전화 모금에 참여했다. 마음은 뿌듯했지만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 ① 불행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는 아쉬움이 있군.
- ②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을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군.
- ④ 연민 때문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연대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군.
- ⑤ 타인의 비극이 나를 엄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도 연민을 가질 수 있군.

19. 밑줄 친 말 중, ㉠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그 사람과는 너나들이하는 사이이다.
- ② 그들은 데면데면하게 수인사를 나누었다.
- ③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걸돈다.
- ④ 석 달 동안 헤어져 있었대서 실면할 것은 없으련마는.
- ⑤ 그 일이 있는 후로 그 사람과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어.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  
 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 버스 정류장, 흠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다) 어머니,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얼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1.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2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현대 산업 체계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179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아카데미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미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자오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뒤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안정성 높은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原器)’를 새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다.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準位)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미터는 크립톤-86 원자의  $2p_{10}$ 과  $5d_5$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 중 파장의 1 650 763.73 배와 같은 길이이다(CGPM, 1960).”

(주: 국제표준단위계(SI)는 큰 수를 3자리씩 구분하여 적음)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 개발된 레이저 빛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에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1983년 제17차 총회에 반영되어 미터 정의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CGPM, 1983).”

[A]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 792 458(1.2) m/s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24.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표준의 정의는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면 안 된다.
- ② 자오선의 길이는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 복원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③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④ 1960년의 길이 표준과 1983년의 길이 표준은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
- ⑤ 백금-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다.

25.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한 온도가 달라서 오진이 우려된다.
- ③ 건전지 전압이 제조 회사마다 달라서 전자 제품이 고장 난다.
- ④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 자동차가 고장 난다.
- ⑤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사업자 간에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26.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다.
- ②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 ③ 빛은 진공에서 1초에 299 792 458 미터를 진행한다.
- ④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 ⑤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27. ㉡은 ‘눈금’과 ‘자’가 [형체]와 [형체가 새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다음 중 이와 같은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은?

- ① 꽃무늬                      ② 삼각자                      ③ 저울눈
- ④ 그림물감                  ⑤ 모눈종이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을 한 거야. 나도 학교를 마치지도 않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나 버렸어. 귀찮은 일이 자꾸 따라다녔지.”

㉠ 재종숙은 그때 일을 바로 어제 일같이 말하였다.

“그 일뿐이 아니라고. 참으로 못할 짓 많이 하였지. 그런데 내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던 그가 아주 요란스럽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재종숙의 말은 자꾸 헛갈렸다.

김만호 씨는 면 농회 근무 3년 만에 서른이 안 된 나이로 면장이 됐다. 재종숙은 아마 그가 제일 악질적인 면장이었을 거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용서하지 못할 일은, 그가 가장 면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젊은 면장으로서 이 제주 섬에서 가장 도사(島司)의 신임을 얻은 면장이 되었다. ㉡ 재종숙의 말투는 점점 과격하여 갔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아무리 뼈에 사무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쯤이면 모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해 보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구적인 시민상’을 주어. 나라를 팔아먹는 데, 권력의 종노릇 하는 데 선구적이었어. 그건 김만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여. 신문사 문제만도 아니고, 작은 문제가 아니여. 그 사람이 상을 타면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건데, 아니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여? 안 되여. 안 돼.”

그는 언성을 높였다. 바로 교장 어른을 상대하여 말하는 투였다.

그와 헤어져 거리로 나오자 이번에는 교장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역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지만, 재종숙에게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지.”

교장 어른은 몸소 써서 만든 ‘반야심경’ 열 폭 병풍 앞에서

한복 차림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곱게 늙고 있는 행복한 서민의 모습을 보았다. 육십 평생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만 살다 정년퇴임한 지 몇 해가 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선생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방 한편 구석 문갑 위에 있는 한란 분이 그 어른의 기품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세배꾼들이 다녀갔는지 방석들이 즐비하니 널려 있었다.

교장 어른은 아까 종갓집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벌써 찾아간 연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분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 되도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사실 나 자신 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뚜렷한 생각도 잡혀 있지 않은 처지라서 우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일제 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국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 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야청청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냐 말이네. 어렵없어. 아마 먼저 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불어살았을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굶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재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 그런 교장 어른에게서도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현길언, 「신열(身熱)」 -

2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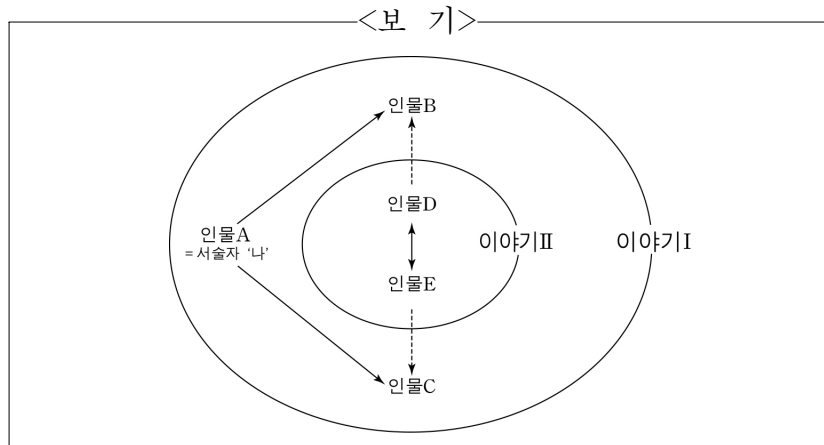
29.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김만호'는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다.
- ② '김만호'와 '강 목사'는 삶의 태도와 관점이 매우 다르다.
- ③ '교장 어른'은 '강 목사'보다는 '김만호'의 입장에서 서 있다.
- ④ '나'는 '재중숙'과 '교장 어른'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재중숙'은 '김만호'의 수상 문제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의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다.
- ② ㉡: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다.
- ③ ㉢: 관련된 사안이 예민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 ④ ㉣: 상황을 들어 당시 행위를 옹호하려 한다.
- ⑤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실망하고 있다.

31.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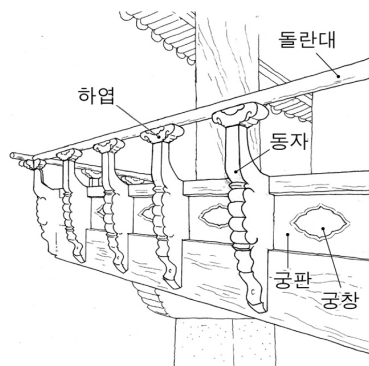
- ① 이야기 I 과 이야기 II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야기 I 과 이야기 II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 내고 있다.
- ③ 이야기 I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II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인물 A가 인물 B와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 D와 E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 II의 비중이 약화된다.
- ⑤ 인물 A가 이야기 II 속의 인물 D와 E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인물 D와 E의 실상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의 전통 가옥이나 누정, 사찰, 궁궐의 건축물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난간(欄干)이다. 선인들의 작품에 '난간에 기대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난간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숨결과 미의식이 깃들어 있다. ㉠ 자칫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주 공간의 끝자락에서도 선인들은 여유와 미감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난간은 ㉡ 원래 사람들의 추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루, 계단, 다리 등에 설치되었다. 우리의 전통 건축물이 대부분 목조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석조 난간보다는 목조 난간이 널리 설치되었다. 목조 난간은 일반 민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박하고 수수한 난간에서부터 멋과 미감을 살린 계자(鷄子)난간으로 발전되어 갔다.

민가에서 주로 보이는 보통의 난간이 특별한 장식 없이 널빤지만으로 잇는 소박한 형태였다면, 계자 난간은 궁판(穹板)에 궁창(穹窓)을 만들어 잇기도 하고, 때로는 궁판 대신에 다양한 모양의 살창을 끼워 ㉢ 한껏 멋을 살리기도 했다. 또한 동자(童子)를 짜서 마루와 궁판에 끼워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면서도 장식미를 드러내고 있다. 난간은 오채(五彩)를 뽐내는 단청의 화려함이나 서까래로 잘 짜 맞춘 대들보의 단단함에는 비길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질박하면서도 화사한 멋과 야무진 짜임새를 ㉣ 고루 갖추고 있다.



목조가 연출하는 난간의 건축 미학은 자연 친화성에서 나온다. 난간은 특히 독특한 색깔과 무늬로 다른 건축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나무 본래의 특성을 ㉤ 잘 살리고 있다. 멀리서 볼 때 주변 환경과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건물의 품새와 잘 짜인 구성미를 살릴 수 있었던 것도 나무로 만든 난간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난간을 지을 때 하엽(荷葉)과 돌란대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박는 국화 모양의 나무못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선인들의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궁창은 수복강녕(壽福康寧)을 상징하는 거북이나 구름뿐 아니라 연꽃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여기에는 장식적 목적도 있었지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물 내부 공간을 시원스럽게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레 바깥 세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도 들어 있다. 여름날 뒷마루나 대청마루의 난간 창살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미풍의 감촉도 바로 이러한 ㉠ 난간의 공간 미학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미의식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난간이야말로 우리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주는 소중한 문화 유산이다.

32.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난간의 역사와 발달 과정
- ② 난간의 구성 요소와 기능
- ③ 난간의 건축 미학과 의의
- ④ 난간의 재료와 제작 과정
- ⑤ 난간의 건축 목적과 종류

33. 위 글을 읽고 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난간의 궁관에 살창을 내는 것은 계자 난간의 공통적 요소였겠군.
- ② 일반 민가의 난간에서는 궁창의 다양한 모양을 찾기가 어렵겠군.
- ③ 궁창의 모양에는 미적 목적 외에 장수를 기원하는 목적도 있겠군.
- ④ 동자는 난간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군.
- ⑤ 난간은 작은 부분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살렸군.

34.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난간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 ② 난간은 삶의 여유와 운치를 드러내는 소중한 문화재이다.
- ③ 난간은 안과 밖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안과 밖의 연계이다.
- ④ 난간은 외부보다는 내부의 실용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 ⑤ 난간은 주위 환경의 물리적 변형 없이 자연스럽게 설계된다.

35. ㉠~㉣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까딱하면                      ② ㉡: 본디
- ③ ㉢: 최대한                        ④ ㉣: 한결같이
- ⑤ ㉤: 제대로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월이 물같이 흘러 응의 나이 15세라. 골격이 웅장하고 기운이 뛰어나더라. 하루는 응이 모친께 청했다.

“소자 지금 나이 15세요, 이곳이 선경(仙境)인지라 가히 살만한 곳이지만, 대장부 세상에 처하매 한곳에서 늙을 것이 아니옵니다. 신선도 두루 돌아다녀 박람(博覽)\*한다 하거늘 소자가 슬하를 잠시 떠나 산 밖에 나가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하나이다.”

왕 부인이 매우 놀라며 말했다.

“천리 타향에 너는 나만 믿고 나는 너만 믿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늘 네 일지인들 내 슬하를 떠나며, 내 어찌 너를 내어 보내고 일지인들 잊을쏘냐. 네 어디를 갈 양이면 한가지로 할 것이라. 차후는 그런 마음 두지 말라. 매우 놀랍도다.”

응이 다시 아뢰지 못하여 물러 나와 월경 대사와 의논했다.

“내 이제 세상에 나가도 남에게 화를 입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내 몸이 중이 아니라 오래 산 속에 있사오니 황성 소식도 모르고 나의 심중에 품은 일도 아득하와, 일전에 모친께 사정을 고하오니 도리어 꾸중하시는 바람에 다시 거역하지 못하였삽거니와, 대사께서는 저를 위하여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펴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대사가 말했다.

“공자의 말은 반반한 장부의 말이로다.”

하고 부인 앞에 가서 고금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공자의 품은 큰 뜻을 여쭙니 부인이 말했다.

“말은 당연하나 만리타국에 보내고 어찌 이 적막강산 사고 무친한 곳에서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며 또한 저의 나이 어리고 세상사에 어리석은지라,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 될 줄 알리오.”

“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를 어리다 하시거니와, 천병만마에 시석(矢石)\*이 비 오듯 하여 살기(殺氣)가 충천한 곳에 넣어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니 부인은 어찌 사람의 운명을 의심하십니까? 홍문연 살기 중에 패공이 살아나고, 파강산 천경사의 부인이 살아났으니 어찌 천명을 근심하리오. 소송 또한 공자의 환란을 짐작하지 못하오면 어찌 출세함을 권하며, 공자 세상에 나가도 부인은 이곳에 계시오면 무슨 근심이 있으리까?”

이렇게 설득하니 부인이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 “만일 존사의 말씀과 같지 못하면 어찌하리오?”

“공자의 평생 영욕(榮辱)을 다 알았사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부인이 마지못해 허락하니 대사와 응이 기뻐 이튿날 길을 떠났다.

(중략)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뵈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쫓아 맞히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꺾어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워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반나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묘연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윽이 앉아 응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A]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못에서 용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라.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응을 칭하니 응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칭하시나이다.”

응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응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응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여러 날 굶주린 배에 좋은 밥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뱃속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의 먹는 양을 어찌 알아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이 글을 보아라.”

하거늘, 응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성현(聖賢)들이 쓴 책이다. 응이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거늘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도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뜻이 넓어지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 박람: 사물을 널리 봄.

\*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36.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관 도사는 조웅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 ② 왕 부인은 조웅의 입신양명을 희망하고 있다.
- ③ 동자는 조웅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④ 월경 대사는 조웅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 ⑤ 조웅은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37. [A]의 서사적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주인공의 예언 능력을 보여 준다.  
ㄴ.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한다.  
ㄷ.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ㄹ.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대성**: 나는 「소대성전」의 주인공이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영웅이 되었지. 그런데 내가 영웅이 된 과정은 나와 다르더군.

**조 웅**: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신의 박해를 받아 고생을 했고, 그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영웅이 되었지. 태어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까지 줄곧 적과 싸움을 한 셈이야.

**소대성**: 나도 부모를 잃어 고생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 없었어.

**조 웅**: 그렇구나. 나는 너와 달리 스승을 찾아야 했고, 참으로 긴 수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소대성**: 그래서 너의 이야기에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 특징이 있구나.

- ①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설정된 사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 ② 주인공의 영웅성과 함께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을 부각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③ 스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내어 소설의 교훈성을 부각시킨다.
- ④ 주인공의 시련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주제를 심화시킨다.
- ⑤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보다 고난 극복에 대한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39. 문맥으로 보아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왕 부인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군.
- ② 왕 부인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군.
- ③ 왕 부인은 ‘식자우환(識字憂患)’에 해당하는군.
- ④ 왕 부인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있군.
- ⑤ 왕 부인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말을 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해 전 경북 안동의 묘에서 16세기에 쓰인 한글 편지가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를 ‘언간(諺簡)’이라 한다. 언간은 우리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언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 자료이다. 지금까지 많은 언간이 전해지지만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언간의 특징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언간이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에 보이는 문체적 특징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이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17세기 언해 자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그 어미와 밋 식어미로 더브러(與其母及姑)’ 부분을 보면,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밋’이 더 들어 있다. 또한 ‘밤 들때 미쳐 ㄱ마니 나가’라고 해야 할 것을 ‘밋 밤 들때 ㄱ마니 나가(及夜間潛出)’라고 하여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자네 여히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네한테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자네 향히 므으물 츄싱 니줄 주리 업스니  
(자네 여히고 아무래도 내 살 수가 없으니 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줄이 없으니)

위에서 보듯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네’라는 호칭어를 쓰면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한 ‘한테’의 옛 형태인 ‘한디’가 이미 16세기 언간에서부터 쓰이고 있었고, ‘히’가 ‘히’로 축약된 어형이 언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구어적 성격은 다른 언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체후 일헝 만안흐옵신지 뽕 북모 간걸흐옵고 …… 자셔한 말심을’에는 당시 중앙어의 일반적인 어형인 ‘일향(一向)’, ‘뽕(竝)’, ‘말슴’ 등과 비교할 때,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이 밖에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의 효율성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ㄴ’(재점)을 이용한 표기이다. ㉠ ‘총 〃 그만 굿치압’, ‘더옥 〃 근심코 인노라’, ‘너히나 가 보고자 〃 브라느니’, ‘부디 〃 잘 지니여라’, ‘황송 〃 흐오이다’에서 재점은 각각 ‘총’, ‘더옥’, ‘보고자’, ‘부디’, ‘황송’을 반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략 표기이다. 오늘날 ‘바빠’의 의미에 해당하는 ‘밧바’를 ‘밧’으로, ‘잠깐’으로 써야 할 것을 ‘잠’으로 쓰기도 한다. 또한 언간의 끝을 ‘이만 적습’으로 하거나 ‘여의치 못흐옵’을 ‘여의치 못’으로 쓰기도 한다.

\* 언해: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쓴 글.

40. ‘언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언해보다 원문의 간섭과 제약이 컸다.
- ② 언해에 비해 우리말 어법에 부합했다.
- ③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다.
- ④ 대화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다.
- ⑤ 남성들이 주로 창작하였다.

41. <보기>는 오늘날 편지의 일부이다. 위 글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자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 그지없었네. 십 년 전을 떠올리며 자네 ㉡한테 걸었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보았네. 앞으로도 목표를 ㉢ 향해 정진할 것을 믿네. 부모님께도 안부 ㉣ 말씀을 전해 드리게.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 적겠네.

2008년 ○월 ○일 홍길동

- ① ㉠은 오늘날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 ② ㉡는 오늘날에도 구어적인 말투에 더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 ③ ㉢와 같이 축약된 형태의 말이 일찍이 언간에서도 확인된다.
- ④ ㉣는 언간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으로 쓰였을 것이다.
- ⑤ ㉤는 언간에서 종결형 어미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2. ㉠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언간에 사용된 재점은 글자나 단어가 반복될 때 다시 쓰는 번거로움과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 ① 총 〃 그만 굿치압
- ② 더옥 〃 근심코 인노라
- ③ 너히나 가 보고자 〃 브라느니
- ④ 부디 〃 잘 지니여라
- ⑤ 황송 〃 흐오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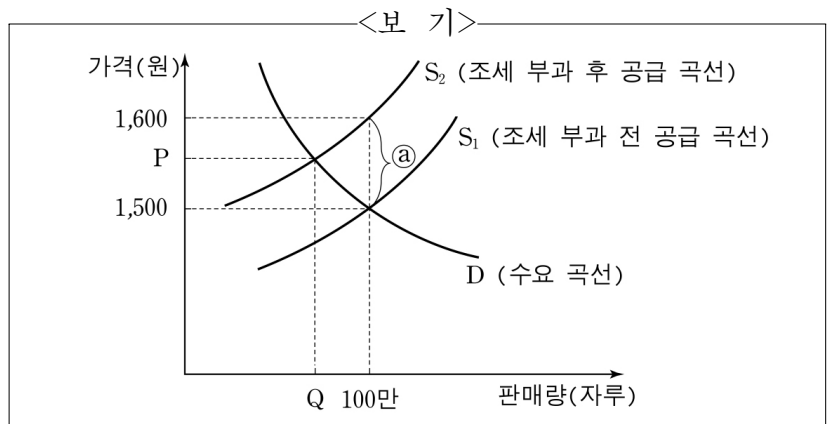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을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sub>1</sub>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②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③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④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⑤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鶯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지배배 ㉠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뽕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鶴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뽕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꼬냐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지 엉킨 묵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 훌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입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

\* 세정: 세상 물정.

(다) 나는 전에 관동 지방에 유람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 너머 물가를 바라보니 인가가 물가의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단풍나무와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초가지붕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니 서리 내린 나뭇잎이 노랑기도 하고 붉기도 하였습니다. 뽕나무를 실은 작은 배와 소금 실은 조각배가 서로 바라보며 오가고, 채소밭과 논두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더군요.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밭두둑에 멈추어 서 있는 사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 어린애를 데리고 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나란히 쟁기를 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닭과 개가 여기저기 나다니고 밥 짓는 연기가 간간히 일어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내달리고 흥취가 일어나 ‘훗날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오면 근심을 잊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이 이야기를 내 친구인 포원자에게 하였더니, 포원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몸소 가 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에 가 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듬성듬성하게만 돋아나 있고 집은 낮은데다가 비좁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야 했었네. 마을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네. ‘여름에 장마가 져 강물이 불어나면 전답이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어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작물을 서쪽 물결에 보내 버리게 되지요.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면 자갈땅이 후끈 달아올라 온갖 곡식이 바싹 말라 버린답니다. 오직 비와 햇볕이 때에 맞고 들판과 습지의 곡식이 모두 잘 익어야 우리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숨을 내쉬며 근심이 없을 수 있지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아침과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하였지만, 어스름이 내린 뒤에는 문을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려가기 때문에 문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호랑이 그물을 친다네.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집이 없었고, 이가 없는 집이 없었네. 가려운 데를 긁어대느라 부스럼이 되었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 그때는 정말이지 미친 듯 고향을 지르고 싶었네. 앞서 말한 뽕나무와 소금 실은 작은 배,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에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나는 머리를 내저으며 서둘러 도망갔을 걸세.”

㉦ 이 말은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與某人)」 -

4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4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4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공감할 수 없는 것  
 ㉡: 서술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 ② ㉠: 화자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 서술자가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 ③ ㉠: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  
 ㉡: 서술자가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인식하는 계기
- ④ ㉠: 화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원인  
 ㉡: 서술자가 체념적 태도를 갖게 되는 원인
- ⑤ ㉠: 화자의 외로움을 확대시키는 원인  
 ㉡: 서술자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원인

49.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50. (다)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의 서술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도심의 한복판에서 매연과 소음 속에 살아가는 데 지쳤어. 지난 여름에 한 번 들렀다가 마음에 품었던 능수산이 생각나는군. 이곳을 떠나 능수산의 울창한 숲과 강물을 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어.

- ① 능수산이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줄까요? 그곳은 그곳대로 당신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 ② 선불리 그곳으로 이주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③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시련의 시기를 거치게 마련입니다. 몸이 머무는 곳이 바뀐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요?
- ④ 현실을 벗어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 도피는 당신의 지친 삶을 치유하는 최선책이 아닙니다.
- 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을 지향합니다. 당신이 능수산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분명 또 다른 이상향을 꿈꿀 것입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